

총선 전북 10개 지역구 대진표 '윤곽'

민주, 전주병 정동영·정읍고창 윤준병·남장임순 박희승 완진무 안호영 후보 등 본선행... 전북 후보자 공천 완료 21~22일 후보자등록까지 마치게 되면 지역구 대진표 완성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공천이 지난 13일 완료됨에 따라 도내 10개 지역구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3일) 오후 9차 경선 선거구 결과를 발표했다.

9차 경선 대상인 지역구는 전주병 등 총 4곳으로, 전주병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법무법인 호민 대표 변호사, 완주·진안·무주에 안호영 의원이 본선에 진출한다.

이로서 민주당 총선 전북지역 예비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4월 10일 본선에 진출하는 민주당 전북 예비후보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전북 자존심 회복,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목표로 전력투구에 나선다.

여담인 국민의힘 전북지역 예비후보들은 지역 득표를 향상을 우선으로 하

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은 보수의 불모지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중 3선에 도전하는 정동영 의원(현 비례)의 전주를 탈환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군산·김제·부안을 제외한 9개 지역구 공천을 확정된 상태다.

이들 후보군에 맞서는 제3지대 정당 후보군으로 새로운미래 전북지역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전주갑 신원식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 남원·장수·임실·순창 한기대 전 한국투자증권 전무 등 2명이며, 개혁신당 전북지역 후보는 익산을 황세연 정책위 부의장이 유일하다. 이들은 전북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목표로 세뽀리에 나서고 있다.

21~22일 후보자등록에 신청하기 전 추가로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

무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명망 있는 인물이 출마를 하지 않는 이상 판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22일 후보자등록까지 마치게 되면 전북 10개 지역구 대진표는 완성된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14일 현재) 먼저 전주갑은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운덕 의원, 보수 불모지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양정무 예비후보, 일찍이 자신의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새로운미래 신원식 예비후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완주 의지를 밝힌 무소속 방수형 예비후보가 경쟁한다.

전주을은 민주당 이성운 예비후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3강 체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외에 자유민주당 전기업·자유통일당 오삼례·무소속 김광중 예비후보 등이 뛰고 있다.

민주당 전주병 경선에 통과해 '울드 보이'의 귀환'을 알린 정동영 예비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전희재·녹색정의당 한병욱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군산·김제·부안갑은 친명인 김의겸 의원(비례)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본선에 나서며, 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이원택 의원, 자유통일당 박규남 후보, 무소속 김중훈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공천이 완료된 익산갑에서는 민주당 이춘식 전 의원, 국민의힘 김민서 예비후보, 진보당 전권희 예비후보 등 3인이 본선에 나서며,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문용희 예비후보, 개혁신당 황세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한다.

정읍·고창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최용운, 자유통일당 정후영, 무소속 안재홍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선 민주당 박희승·국민의힘 강병우·새로운미래 한기대·한국농어민당 황의돈 예비후보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완주·진안·무주는 민주당 안호영·국민의힘 이인숙·자유통일당 오덕순 예비후보가 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 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정규(임실), 윤영숙(익산3), 한정수(익산4) 도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12명(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에는 박정규 도의원이 지명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자료를 분석해 감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위촉돼 기대가 크다"며, "결산검사는 조직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4일, 제 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의정활동에 나섰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백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고, 이날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전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주택 의원은 "2026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김승일 의원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통상약터 도입"을 제안했으며, 양운엽 의원은 "지평선 책보고"를 통한 공공 현책방 활성화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은 조례안 9건을 포함해 총 12건으로, 상정된 안전이 행정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장 발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4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익산의 확실한 발전 완성할 것"

민주 한병도 의원, 익산을 3선 도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4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 3선에 도전한다.

한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야 한다"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익산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확실히 닦아냈다"라며 의정활동 성과를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익산시는 '국가예산 품의 1조원 시대'를 열었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국가사업에 연이여 유적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한 의원은 "남다른 경력! 탁월한 실

력! 참일꾼 한병도" 슬로건을 공개하고, "익산의 중단없는 발전과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경력과 실력이 확실히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그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행안위 간사 등 중앙과 지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두루 경험했다"며 힘 있는 이력과 경험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참일꾼 한병도가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완성하겠다"라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조기 추진 및 주요 기관 익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성공과 굴지의 식품업 입주 유도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추진과 원광대 글로벌대학 지정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명성 복원 등 주요 공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편입된 옹포·성당·용안·용동·망성면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삼승침수구역 배수장 증설 및 하천 정비·보강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한병도 의원은 "남다른 경력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참일꾼 한병도가 익산 발전을 더욱 빠르게 견인하겠다"고 말하며, "민주당 총선 승리의 신호탄을 이곳 익산에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주"

국힘 정운천 의원, 실내아구장 조성 등 공약 발표

국민의힘 전주를 예비후보인 정운천 의원(비례)은 1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정운천 의원은 "생활체육시설, 복지시설 확충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전주를 만들겠다"라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실내아구장 신규 조성, 생활아구장 조성사업 신속 추진, 반려동물 보건소 건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저출산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공약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먼저 파크골프 인구가 증



가하면서 생활체육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았으나, 지역 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삼천동 인근에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 야구인들이 전주시 내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실내야구연습장을 신규 조성하고, 현재 전주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균형발전 업무 담당 과 단위로 확대를"

강태창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14일 제4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균형발전 업무 담당 과 단위로 조치가 확대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에 깊은 고민을 해왔고,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시했다"며, "오늘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 핵심 정책으로 그 규모와 영역을 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치는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매우 빈약하고 소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경기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의 균형발전



업무는 실·국 또는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균형발전 과 아래 균형발전정책과와 공공기관 유치과에 각각 4개 팀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아래 균형발전팀 단독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균형발전 업무의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직 확대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녕 중심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김관영 지사의 공약이 빌공의 공약(空約)이 아닌 공명수사할 공의 공약(公約)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김희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를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는 휠체어가 있는 이동지원이 없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동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를 이용자 수는 2021년 5,801명, 2022년 6,351명, 2023년 7,01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 또한 2021년 3,034명에서, 2022년 3,308명, 2023년 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가족 장례 시 장례식장, 화장터, 장지 등 여러 번 이동을 해야 하는데 현행의 특별교통수단은 사전예약 7일 전 마감과



대기인원으로 장례 절차에 맞춰 이용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동 문제로 더욱 비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3년 위촉된 제3대 운영심의위원회는 17명 중 8명으로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제2대보다 2명 줄면서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운 위원회 구성으로 바뀌었다"면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통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희수 의원은 "매년 교통약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교통약자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추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내 교통약자가 더 이상 사회적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일제잔재 청산 지원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체계적인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 2019년 당시 삼일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을 친일잔재 청산 원년으로 삼자며 도 차원의 친일잔재 청산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발주하는 등, 도내 산재해 있는 일제잔재 발굴을 위한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을 위한 활동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제잔재 발굴과 청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게 됐고 그 결실이 이번 조례안 발의 및 통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최근에도 현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등 한국사회는 아직도 완전한 탈식민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니다"면서,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온전한 탈식민 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체계적인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지원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과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사연구, 대대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